

성신여자대학교 2부관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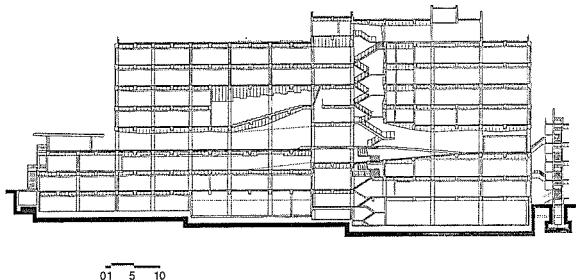
오섬훈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Oh Seom-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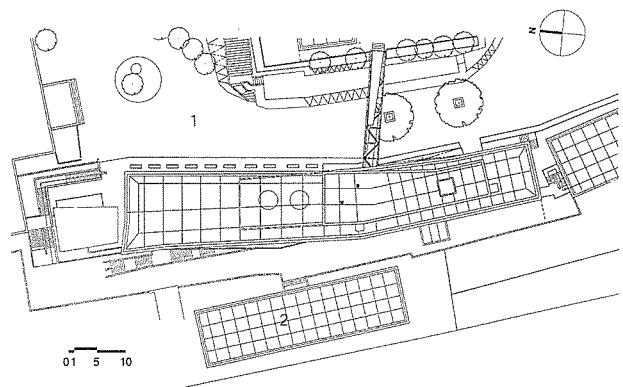
애초에 이 건물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양한 행위의 띠(Nomadic Event Band)' 와 '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강의실, 식당, 사무실 등)' 와의 병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의외의 행위들, 재미있는 공간들, 또 이상하게 생긴 장소, 일어나는 행위의 밀도나 속도에 있어서 느림과 빠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나는 장소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위치해 있는 장소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주변(미아리 고개, 동소문동 아파트 등)에서 이 학교를 볼 때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학교를 홍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학교 건물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른 행위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처음 계획에서는 지상층 외벽이 모두 유리로 제안되었다. 서쪽면에서 루버를 두고 복도를 두어서 강의실과의 완충을 시도했지만, 서향빛에 의한 열손실에 대한 방법을 극복치 못하고 현재와 같이 유리부분을 조절했다. 전술했듯이 캠퍼스 몸 주변에 여러 다른 레벨에 위치해 있는 건물들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들과 일반 강의실들을 연결하는 지점들은 가능한 유리를 크게해서 원래의 의도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강의실들만 주로 있는 부분들은 창을 작게 해서 서향 빛에 의한 열손실을 막고자 했다. 창의 패턴들이 넓은 것에서부터 좁은 것에 이르기까지 리드미컬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은 창의 넓고 좁음에 의한 입면효과 보다는 지상층 전체가 한 덩어리로서, 또 표피 바로 뒤에 있는 행위의 층(Layer)를 방해하지 않을 자연스러움의 제공, 이 두 가지의 이유에서였다. 모두 유리로 되어 있을 때보다 실제적으로 훨씬 덜 익힐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의도를 반영했다고 여겨진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캠퍼스 몸 레벨(피로티로 된 부분)에서의 여러 장치들이다. 바로 아래층의 식당과 캠퍼스 몸의 레벨차이에 따라 같이 놓여진 매점이나 행정실, 입구홀, 5층, 6층의 대형강의실과의 연결 장치들로서 계단, 원만한 램프, 보이드(Void), 선큰가든 (Sunken Garden), 브릿지, 계단홀의 다이내믹한 구성 등 이 주변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었던 이런 장치들이 50%이상 날아가버렸다. 그 흔적과 큰 틀만 남아있다. 많은 애정을 쏟았던 부분이었다. 시각적인 연결뿐 아니라 행위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외부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에 내외부경계를 설정할 뿐이다. 중요한 건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의 연결이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학교시설지역
대지면적	70,511m ²
건축면적	20,461.85m ² (2부관 - 1,020.17m ²)
연면적	92,661.85m ² (2부관 - 6,190.91m ²)
건폐율	29.02%
용적률	131.41%
규모	지하1층, 지상9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콘크리트 노출위 불소페인트, 드라이비트, THK18 복층유리
내부마감	바닥 - 테라조타일, 석재타일 벽 - 수성페인트, 탄성계페인트 천장 -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규산질계천정판
설계담당	강희성실장, 금창준차장, 이세우, 성은정, 강주형, 이윤아, 홍상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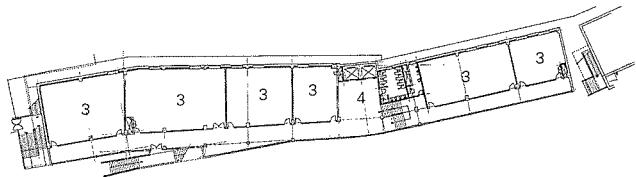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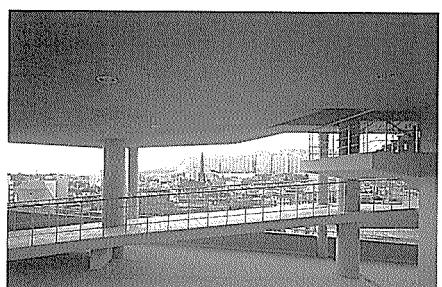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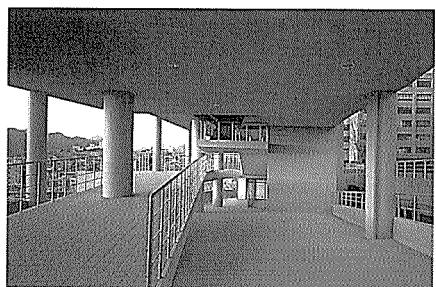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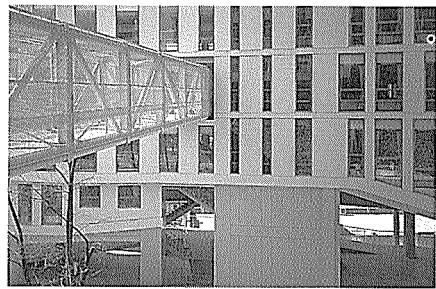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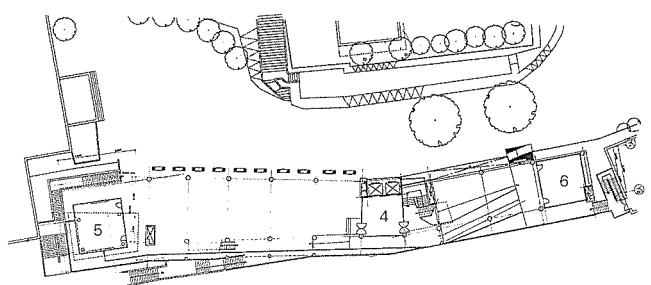


배치도

1. 광장
2. 학생회관
3. 강의실
4. 홀
5. 매점
6. 학생편의시설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